

“외국인 불교알리기 감 잡았어요”

관광가이드 20여명 통도사 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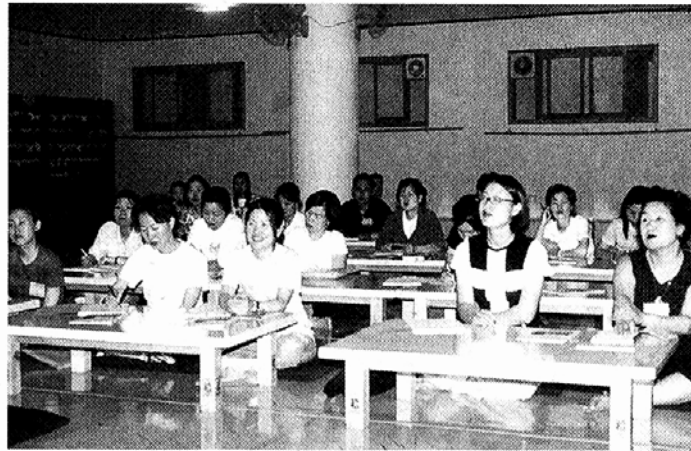
기쁘게 맞아 줘서도 맘이 절로 나는 요즘, 지난 5일 양산 통도사에서 20여명의 관광가이드들이 저녁예불을 드리고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사찰을 소개하며 한국불교를 설명하던 그들이지만 법요집을 손에 들고 절을 하는 모습은 웬지 어색하다. 자신의 신앙으로서가 아니라 관광객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불교의 단편지식을 습득했던 이들에겐 어찌던 당연한 모습이다. 그래서 이들은 조계종 포교원이 주최한 관광가이드 연수를 통해 올바른 불교지식을 배우고 불교를 가슴으로 느껴보고 싶어 한자리에 모였다.

오후로 3회 제인 관광가이드 연

수는 조계종 포교원이 가이드들에게 불교와 불교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다는 목적으로 매년 개최해 온 단기연수로 그동안 114명의 가이드들이 참석했다. 가이드 경력 14년째인 정순영

조석예불·참선·발우공양 체험 불교문화재 바른 지식도 습득

(49)씨는 조석예불, 참선, 발우공양, 다도 등 짧게나마 스님생활을 하며 불교를 체험했다. 처음에는 자세가 익숙하지 않아 육체적인 고통까지 느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불교의 깊은 내면세계를 조



관광가이드들이 예불, 참선, 발우공양 등 불교체험에 앞서 5일 통도사에서 ‘한국불교문화의 특색’이란 주제로 강의를 받고있다.

프로그램이 짜여졌다. 사찰 조형물에 대한 강의시간, 참석자들은 슬라이드 한 장 한 장을 유심히 바라본다. 강사의 설명에 사찰 당우는 물론 불상, 탑, 탱화 등 불교문화재의 의미가 새롭기만 하다.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많은 가이드들의 얼굴에는 한국문화의 80%이상 차지하는 불교문화재에 대해 너무나 몰랐구나 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면 외국인들에게 불교를

올바로 알려야겠다고 저마다 다짐한다.

연수는 다음날인 6일까지 이어졌다. 통도사 포교국장 오심스님의 안내로 서운암, 인양암, 자장암 등 통도사의 암자를 참배했다. 암자에 들어서면서 반배를 하고 법당에 둘러 삼배를 하는 모습에서 전날 저녁 예불 드릴 때의 어색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연수를 통해 종교가 없는 가이드들은 자연스레 불자가 되었다. 조계종 포교원도 더 많은 관광가이드들에게 불교를 알리기 위해 한국관광공사에서 개최하는 가이드 기본교육에 불교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포교원의 한 관계자는 “관광가이드 직능불자회를 만들어 불교의 이미지 향상과 포교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일터에서 쓰는 마음의 편지



조규오 <강원도청 사무관>

어렵고 힘들었던 IMF의 긴 터널도 서서히 온 국민의 힘으로 슬기롭게 극복해가고 있는 시기와 맞물려 새 희망과 꿈을 가져다 줄 뉴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한 지도 벌써 6개월이 지났다. 천년을 뛰어넘은 큰 발걸음으로 나서는 우리 앞에 장엄하게 떠오르는 태양처럼 새천년에 맞는 넓은 사고와 큰 비전이 필요한 때이다.

지난 세기가 양적 성장을 추구하는 물질적 관리시대라면 21세기는 개성화, 다양화, 인간화를 추구하는 정보화시대로 생활관, 가치관까지도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도전을 극복하지 못하면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다.

지금 공직사회는 2단계 구조조정과 연금법 개정이 예고되면서 조기 퇴직 바람이 불고 있다. 그동안 가장 안정된 평생직장으로 공인된 공직사회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다.

정년을 맞아 명예롭게 퇴임

리 주위에 아프고 힘든 이웃을 위하여 잘 못한 속박과 골레로 부터 벗어나 부처님의 자비광명을 향하여 하기를 서원한다.



“이웃 소원 모두 이뤄졌으면”

한 선배 공직자도 있었지만 금년 대부분 40대 중반부터 50대 후반에 이르는 동료들이 정년을 앞당겨 자의반, 타의반으로 조기 퇴직하고 있다.

이들은 직장을 떠난 뒤 할 일없이 시간을 보내기에는 너무나 젊은 나이들이다. 함께 근무하던 공무원 동기나 친구들이 하나 둘 퇴직을 서둘러 새로운 인생길을 찾아가는 모습을 볼 때 남의 일만 여겨지지 않아 나 자신도 앞날을 위해 마음을 준비를 해 본다.

나는 10년 전부터 매일같이 새벽 5시엔 봉의산을 등반하여 업무와 관련해 심신에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하루 일과를 구상해 왔다.

1시간여 동안 삼삼육과 운동으로 몸을 풀고 돌아와 봉의산 자락에 위치한 봉선원이나 집에서 나 자신을 돌이켜 보며 더 나은 삶을 살겠다는 기도와 삼기의 독경, 기도발원, 사후서원의 순서에 따라 아침예불과 명상의 시간을 갖는다. 기도 시간이면 나는 공직생활을 통해 쌓여온 타성적인 생활습관에 고달픈 어제의 일들을 한순간 잊어버린다.

신앙 생활 중 이 아침기도는 하

이런 회한의 정신으로 나는 직장 상사나 부하를 대할 뿐 아니라 업무 수행과정에서 민원인을 접한 다. 그래서 모든 것을 긍정적인 자세로 배워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며 업무를 추진한 결과, 금년 2월 경제기획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다.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얻어진 공덕이라 나는 믿는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은 중소기업 지원 업무를 담당하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그들의 고충을 해결해 주면서 기업인과 도민을 위한 보시행을 내 나름대로 펼치고 있다.

나의 삶에 있어 부처님과 인연을 맺은 일이 참으로 고맙다. 오늘도 부처님 가르침을 끊임없이 배우고 정진하면서 맑게 일어날 내일을 위하여 공덕을 쌓아가고 있다. 그 공덕으로 마음이 정화될 때 선업만을 차곡차곡 쌓아 새로운 업의 씨앗을 뿌리면서 지혜광명과 자비로운 미소가 온누리에 펼쳐지는 삶이 되도록 가꾸어 갈 것이다.

탐방

대한중석 석불회

300배 정진...“수련 강도높게”

탱크의 철갑판이나 굴삭기들에 사용되는 대탄중석(주) 석불회(石佛會, 회장 임갑수)는 7월23일 청도 죽림사에서 3천배 정진법회를 갖는다. 탱스텐 만큼 강도 높은 정진을 통해 심신을 다지겠다는 각오다. 최근 구조조정으로 침체에 있는 대부분의 직장직능 신협단체와 달리 석불회는 흔들리지 않는 신협활동으로 타의 모범이 되어 왔다.



석불회 회원들과 가족들이 98년8월 남산 성지순례도중 한자리에 모여 활짝 웃고있다.

MF로 인원줄여 회원 50명 회지발간등 재도약 준비

찾겠다는 계획이다. 임회장과 함께 석불회를 이끌어 가고 있는 사무국장 김형중씨(35). 그는 그동안 생명나눔실천회 대구경북도임과 대한불교연회 이지도자연합회 대구지부의 산파 역할을 하는 등 많은 일을 했지만 이번 석불회를 위해 열심히 3천배를 할 생각이다. 임회장은 “불자라면 참선을 통해 마음을 닦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아니겠느냐”며 “앞으로는 참선을 비롯한 수행중심의 신행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이윤호 기자

우리 모임예선

승만부인회 관측사 순례

승만부인회(회장 심경숙)는 4일 논산지역에 위치한 관측사와 쌍계사로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이번 성지순례는 18명의 회원이 동참해 신심을 다졌다. 올 1월 22일 창립한 승만부인회는 철도청 상복승무사무소에 근무하는 불자들의 부모모임으로 그동안 매달 셋째주 화요일 2시 월계동 기원사에서 상복승무사무소 법우회와 함께 정기법회를 가지는 등 꾸준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유니텔 부처님 나라 수계법회

유니텔 불교동우회 부처님 나라(대표이사 이태

클릭! 새 홈페이지

- 한우스님(<http://www.buddhapia.net>)-남지장사 주지 한우스님 소개 및 남지장사, 청련암, 백련암 안내가 들어있다. 한우스님과 함께하는 수심결 강의와 불교 답하기 코너도 마련되어 있다.
- 세계화두선선양회(<http://www.whatiszen.com>)-화두선에 대한 홈페이지, 이렇고 참구법, 선의 요약서, 화두란 무엇인가, 안티선 페이지 등을 한글판과 영문판으로 제공한다.
- 봉인사(<http://soback.kornet21.net/~bonginsa>)-봉인사 소개, 봉인사 한길정진원에서 수시로 개최되는 여래선 수련회 안내도 있다. 위빠사나 수행법에 대한 교육 일정 및 방법, 매달 발행되는 한길법회도 볼 수 있다.
- 보현불교공중(<http://bohyun.hanaronews.co.kr>)-석문 & 달마도 전문취급사. 회사소개 및 불교용품, 핸드폰용, 열쇠고리, 육전, 표구 등에 관한 자료를 볼 수 있다.
- 성불원(<http://www.sungbul.or.kr>)-사회복지

경)는 1. 2일 양일에 걸쳐 불국사에서 수계법회를 가졌다. 이번 수계법회에서는 불국사 주지 성타스님을 증명법사로 모시고 150명의 부처님나라 회원들이 계를 받았다. 수계를 받기에 앞서 부처님 나라 회원들은 불국사 경내 석가탑과 다보탑을 도는 탑돌이와 석굴암 부처님을 참배했다. 한편 부처님 나라의 매주 목요일 7시 30분 강남포교원에서 목요 참선반을 개설해 회원들의 신심을 다지고 있다.

은평구청 불심회 흥창사서 법회

은평구청 불심회(회장 이길영)는 4일 관내에 위치한 흥창사로 사찰 순례 법회를 다녀왔다. 이배영 구청장을 비롯해 불자 60여명이 참석한 이번 법회에는 참선사 주지 성운스님이 설법을 대신해 금강경을 강의했다.

사업을 펼치고 있는 성불원 홈페이지, 원장인 현각스님 소개부터 성불원 소개, 법회 안내 등이 일목요연하게 들어있다.

- 약사사(<http://www.yaksasa.com>)-영문판, 일문판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 경주 견훤에 위치한 약사사 소개 및 약사여래불과 달마대사에 대한 설명, 달마도 안내 등이 있다.
- 한길법당(<http://ekayana.oo.co.kr>)-한길법당 운영 취지에서부터 법회안내, 교리해설, 상식 등의 코너를 제공한다.
- 성불사-영산불교 학생회(<http://cafe.daum.net/sungbul1>)-6월11일 개설. 성불사 학생회의 모임 장소. 성불사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만든 홈페이지.
- 여행과 불교를 사랑하는 사람들(<http://www.freechal.com/LoveBuddha>)-6월12일 개설. 여행을 통해 불교를 알고자 하는 이들의 모임.

홈페이지를 개설한 불자님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02)722-4162 jyrgang@buddhapia.com

天蔘 토종 오가피의 신비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광수 씨

● 事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車 (영득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층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차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 延年 不老 仙藥也 (연년 불로 선약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낙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학박사)

■ 용내닐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연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상담 : 02)447-5300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식품대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등 세계 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권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향작용의 성분이 신권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나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대아기 영아의 뱃중을 통해 모태에서 영향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권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로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 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침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생리통·기미 33세권 가정주부입니다. 저의 경우는 약15년동안 허리진통으로 늘 고생해왔고 특히 그 진통으로 인해 저녁엔 잠이 들지 못하고 깨어있어야만 했습니다. 정형외과, 산부인과, 지압·교정 등 치료방법을 해보았지만 진통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우연히 향비를 알게 되었고 향비를 착용한 5일째부터 신기하게도 단 한번의 진통없이 아침까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향비의 착용이라는 것은 생각않고 피곤해서 그런가 했는데 며칠을 두고 관찰해 보니 향비사용으로 저는 생리통이 심하고 색은 아주 검고 양이 페드에 묻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디다. 그런데 향비를 사용한 그달에 생리의 결과는 놀랍게도 생리통이 없어졌으며 색도 아주 맑고 깨끗해 짜증이 나지 않았고 물론 허리의 진통도 감소되었고 양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좋은 향비를 개발해 널리 보급한 고려물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군포시 금정동 장영희)

▶ “개방되는 중상에 (-) 학습시요.”

-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 5 기미가 있다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7 우울증이 있거나 육욕이 없다
- 8 생리주기가 정상이 아니다
- 9 생리일이 심한 편이다
- 10 생리때 배가 아프고 딱딱하다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썩는 편이다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15 전반적으로 활력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16 목이 바짝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생을 당한다

고려물산·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